

오늘 브리티시 오픈 개막...박인비 사상 첫 '캘린더 그랜드 슬램' 주목

<한 시즌에 4대 메이저대회 석권>

“긱은 날씨·깊은 벙커 뛰어 넘어라”

신지에 등 태극낭자 21명 출전

세계 골프역사에 새로운 페이지에 도전하는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날씨와 깊은 벙커를 '캘린더 그랜드 슬램'으로 가는 걸림돌로 꼽았다.

박인비는 31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울드코스(파72·6672야드)에서 한국 취재진들과 기자 회견을 갖고 "날씨 변화가 심해서 어제 연습라운드와 오늘 프로암에서 친 코스가 완전히 다른 코스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1일 같은 장소에서 개막하는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올해 메이저 4연승에 도전하는 박인비는 "어제 연습라운드에서 8번 아이언을 들었던 곳에서 오늘은 웨지를 꺼내야 할 때도 있었다"며 바다가 인접한 링크스 코스에서 날씨 변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연습라운드와 프로암을 치면서 비, 바람 등 다양한 날씨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대회 개막후 예상되는 곳은 날씨에 대비가 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대회 첫날인 1일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시속 30k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또 2라운드 때는 비는 오지 않겠지만 바람이 더 세게 부는다는 날씨 전망이 나왔다. 그는 우승 점수를 예상해달라는 말에도 "날씨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답했다.

박인비가 지적한 또 하나의 변수는 벙커다. 그는 "올드 코스는 다른 링크스 골프장과 비교하면 러프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반대로 벙커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짐작하기도 힘들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박인비는 "벙커의 턱이 워낙 높아 앞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 없어서 옆이나 아예 뒤로 쳐야 하는 경우도 잦다"며 "예전에 이곳에서 4~5번을 쳐도 벙커에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턱이 높은 벙커를 의식

해 60도 웨지도 가져오기는 했지만 56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실제 대회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인비가 꼽은 승부 혹은 443야드 파4인 17번 홀이다. 박인비는 "타샷은 그린에 보이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편"이라며 "특히 핀이 왼쪽 뒤에 있을 경우 두 번째 샷이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걱정했다.

2007년 브리티시 여자오픈이 이 장소에서 열렸을 때 이 홀은 파5로 세팅됐었다. 그는 "핀 앞쪽으로 보내려면 벙커가 위험하고 넘기면 카트 도로까지 가기 일쑤"라며 "핀 위치가 그곳으로 정해진다면 보기까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박인비는 베이트리스 레카리(26·스페인), 조디 세디프(27·영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1라운드는 1일 오전 7시03분(한국시간 오후 3시 03분), 2라운드는 2일 오전 11시 48분(한국시간 오후 7시 48분)에 시작한다.

메이저 4연승으로 사실상 세계 골프 사상 최초로 '캘린더 그랜드 슬램' 달성에 대한 부담감을 묻자 박인비는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계속 그런 느낌과 질문을 받다 보니 무너지는 것 같다. 즐기는 마음으로 편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44명이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루며 모두 25개 나라에서 선수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에서는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를 비롯해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신지애(25·미래에셋) 등 21명이 출전해 41명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 가운데 19명이 출전한다. 출전 선수 가운데 최연소는 뉴질랜드 교포 루디아 고(16), 최고령은 줄리 잉스터(53·미국)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가 30일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가 열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울드 코스 14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광주 스포츠용 클럽 생산업체 '제일에스지'

전국 학생골프대회 개최 화제

8~9일 나주 골드레이크

350명의 남녀 학생선수들이 출전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지역 스포츠·레저용 클럽 전문 생산업체가 학생 골프대회를 개최해 화제다. 제일에스지(대표 박종호)는 오는 8~9일 이틀간 나주시 남평읍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SR30배 전국 학생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남자 중등부 55명, 여자 중등부 50명, 여자 고등부 55명, 남자 고등부 160명 등

350명의 남녀 학생선수들이 출전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여자고등부와 남자 중등부는 힐·밸리코스에서, 남자 고등부는 골드·레이크 코스에서 치러진다. 남자 고등부와 여자 고등부 1위에게는 우승컵과 상장, 장학금 100만원을, 남자 중등부 1위에게는 우승컵과 상장, 장학금 70만원을 수여한다.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제일에스지는 세계최초로 3번 인체 통형 SR30 골프 장갑과 SR30 트

레깅 장갑 등을 개발한 스포츠·레저용 클럽 전문 생산업체이다.

브랜드명인 SR30은 10개의 통풍구멍이 시원한 입체 바깥을 만들어 30도 날씨에서도 땀발생이 안돼 가볍고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제품특성을 담고 있다. 울 상반기에만 100만개가 판매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박종호 대표는 "PGA와 LPGA에서 한국선수들의 연이은 승진보가 올리고, 골프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어린 학생선수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번 대회는 중·고교 선수들이 실전경험과 실력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0-5454)

/최수성기자 css@

서석고 고현준 고교 최고 검객

대구대 총장기 전국대회 금메달 차지

광주 서석고 고현준(3년·사진)이 제 16회 대구대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대회에서 고교 검객 최고수 자리에 올랐다.

고현준은 지난 30일 경북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이현재(마산 가교고 3년)와 맞붙어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고현준은 3관 2선승제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6번을 겨루며 1포인트만 실점하고 12포인트를 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0개 학교에서 160여명의 고교 검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특히 서석고 검도부 주장을 맡고 있는 고현준은 지난해 말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12명)으로 뽑혔다.

서석고 검도부는 지난 6월 경남 하동에서 열린 제22회 회장기 전국 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남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정동진 서석고 감독(광주시 검도회 전무이사)은 "고현준은 고교생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6번을 겨루며 1포인트만 실점하고 12포인트를 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0개 학교에서 160여명의 고교 검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협회 이사회에서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고 의결한 뒤 6~7월 일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600만원을 모았다"며 "미래 전남체육 인재육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우수선수들의 발굴, 육성에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축구협회, 체육인재 육성 장학기금 1600만원 전달

전남축구협회(회장 서정복·사진)가 지역 체육인재 육성에 큰 힘을 보태다. 서정복 협회장은 지난 30일 전남도체육회 제247차 이사회에서 축구인재육성 장학기금 1600만원을 배운대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지금까지 전남축구협회가 기탁한 장학금은 서정복 회장과 기성용(영국 프로축구 스완지시티), 김영광(울

산 현대)이 각각 1000만원씩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손영대 전무이사과 신정식 부회장이 각각 150만원, 박국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50만원, 구인들이 정성껏 모은 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 1600만원을 배운대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에 따라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7월 말 현재 12억 8845만원이 적립됐다. 서정복 회장은 "지난 5월 전남축구



협회 이사회에서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고 의결한 뒤 6~7월 일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600만원을 모았다"며 "미래 전남체육 인재육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우수선수들의 발굴, 육성에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with a list of hiking route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with various event listing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with various event listing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with various event listing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광주지방법원' (Gwangju District Court) regarding a public notice and court decision.

Large advertisement for 'megabox' movie theater, featuring 'The Wolverine' and 'The Expendables 2' with showtimes and prices.